

V. 主要 經濟 이슈 解説

○ 建設교통부, 96년 아파트 標準 建築費 인상 방침(10. 26)

- 89년 原價 連動制 도입후 매년 5~6% 인상 → 96년 10% 이상 인상 방침
- 이에 따라 96년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8~9% 인상 전망

○ 재정경제원, 部分 保證制 導入 방안 검토(10. 28)

- 기업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시 신용보증기관은 대출액의 일부(70~80%)만 보증
- 나머지 20~30%는 대출 기관 자체 보증 부담

○ 재정경제원·증권거래소, 株價指數先物市場 개설 연기(10. 29)

- 전산망 개발 지연으로 개설 연기 (96년 초 → 96년 2/4분기 이후)

○ 재정경제원, 並行輸入 관련 세부 시행 기준 마련(10. 29)

- 병행수입 허용으로 수입 상품간의 경쟁 촉진에 의해 수입품 가격 인하 유도
- 외국부품 도입으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와 OEM 방식으로 생산 수입하는 경우 등 부분적으로는 예외

○ 증권당국, 企業 公開 要件 완화(10. 30)

- 현행 기업 공개 및 상장 요건 중 공모 비율 요건을 완화 (현행 30% → 10~20%)
- 이에 따라 한국통신(株)과 LG반도체(株)가 연내 공개 상장될 예정

○ 재정경제원, 地下 資金 陽性化 방안 마련 착수(11. 2)

- 개인수표제 도입, 대금업 도입, 금융실명제 긴급 명령을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

○ 정부·민자당, 綜合土地稅率 10~20% 인하(11. 3)

- 96년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전국·평균 공시지가의 31.6%로 인상하는 반면, 종합토지세율은 10~20% 인하
- 이에 따라 주택지의 종합토지세율은 인하 (현행 0.2~5% → 0.1~4.5%)

○ 과기처, G7프로젝트에 5개 과제 추가(11. 6)

- 선도기술개발사업(G7프로젝트)에 次世代平板 表示裝置, 핵융합 연구 등 5개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신규 선정하여 2001년까지 총 7,400억 원 투입

○ 재정경제원, 2段階 外換制度 改革 추진(11. 6)

- 12월부터 대기업의 연지급 수입 기간을 연장 (30~150일 → 60~180일), 수출선수금 수령 한도 확대 (전년도 수출 실적의 5% → 10%)
- 96년 초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및 해외 이주비·해외신용카드사용 한도를 대폭 확대

○ 정부·민자당, 아파트 分讓價 자율화(11. 7)

- 강원·충북·전북·제주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(전용면적 25.7평 초과)의 분양가 자율화

○ 建設교통부, 建設 事業 競爭力 強化 對策 마련(11. 7)

- 대형공사에 건설 관리 제도를 도입해 건설 회사가 시공, 감리, 사후 관리 등 일괄적 시공